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학생들 불경 소리가 듣고 싶다”

석재(石齋) 서병오를 회상하며

한반도 유사 이래로 최고의 예술가를 딱 한 사람만 꼽으라면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물론 조각에선 석굴암의 세존상을 만든 이를 따라가긴 힘들 것이다. 금속공예로는 다뉴세문경보다 정교한 거울을 만들기도 힘들 것이다.

회화로는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安堅)이나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겸재(謙齋) 정선을 꼽거나 가장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도안과 완벽한 구도를 자랑하는 고려불화를 그린 이름 없는 화공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납(本納)은 개인적으로 조선 말에 대구에서 태어난 석재 서병오 선생을 최고의 예술가로 선택하고 싶다. 시(詩) 書(書) 畫(畫) 文(文) 琴(琴) 基(基, 비독) 博(博, 장가) 鷹(의)의 여덟 가지에 능해 팔능거사(八能居士)라는 별명을 지닌 석재는 1892년 9월에 태어난다.



석재 서병오의 '사군자'

대구 읍내에서 새벽에 떠나 동화사에 점심때쯤 도달하면 그 때까지 전지 8장을 앞뒤로 빼곡하게 글을 써서 하인에게 보내어 부친이 검사하곤 하였다 한다. 동화사 스님들의 가르침과 부친의 엄한 훈육으로 석재는 안진경, 구양산(歐陽詢), 왕희지(王羲之), 동기창(董其昌), 등의 중국명가들과 우리나라 추사(秋史)의 글씨를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흥안의 석재는 대가들의 글씨 못지않은 명필이 되었다.

본납이 제일 부러워 하던 부분은 석재가 어린 시절에 동화사에 와서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부분이다. 본납이 2년여 동안 머무르던 스리랑카에는 일요일 만 되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절에 모여서 스님들로부터 불교리를 배우곤 하는 것을 보곤 했다.

문예 분야에서 사대부의 삶을 지향하여 시서화에 두각을 나타낸 대표적인 인물이자 영남화단의 중심에 우뚝 서있던 인물이 석재다. 석재는 숙부인 서상해(徐相蕙)에게 양자로 입적하여 생가만석(生家萬石)과 양가만석(養家萬石)의 2만석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석재의 의 8가지 재주를 합하여, 10만석꾼이라고 불렀다. 어린 시절 서동(徐童)이라 불렀던 석재는 영리한 개구쟁이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이런 석재도 아버지의 엄한 훈육에는 꼼짝없이 따라야 했다.

당시 석재의 집안은 누대로 대구 팔공산 동화사(桐華寺)에 시주하던 신도였기에 석재의 부친은 석재를 동화사에 보내 산자수명(山紫水淸)한 경치를 벗삼아 호연지기를 키우도록 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매일 아침 하인이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四物 ‘두드림’ 에 포교 원력 담아

‘이뭇고’ 총예술 감독 부명 스님

범고 목어 운관 범종이 무대 위로 올랐다. 6월 2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은 타악퍼포먼스 ‘이뭇고’ 공연으로 뜨거웠다. 한껏 고조된 공연장 관객들은 박수 치며 이색 퍼포먼스에 흥겨워했다.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사물들이 타악기로 변신해 관객들을 찾은 ‘이 뭇고’ 뒤에는 문화 포교에 앞장서겠다는 부명 스님(사진 왼쪽·인천 백령도 몽운사 주지)의 원력이 숨어 있었다.

“절집의 범고를 보며 공연으로 만들면 훌륭한 포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많은 대중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원을 품었죠”

스님은 이후 조계종 포교원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포교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교회 성당 등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모두가 젊은이들과 문화적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였어요. 절 집안은 너무나 훌륭한 국보 보물이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현대문화와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잖아요. 현대와 소통은 이제 불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스님은 젊은층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포교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범고 운관 목어 범종을 무대 위로 올리는 연구에 들어갔다. “절 집안 사물은 무게와 부피가 엄청나 무대 위로 올리기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와 성형



四物을 연주용으로 제작 특허 진정한 행복 찾기 과정 보여줘 (사)이뭇고 설립, 지방공연 계획

을 시작했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나무 함성섬유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미니멀하면서도 원래 사물 소리를 내는데 근접한 타악기를 만들었죠. 이들은 현재 특허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3년여 동안 악기를 개발하고 각본을 쓰고 단원을 모집하는 등 스님은 본격적인 공연 제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뭇고’는 6월 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뭇고’는 70억 인구를 대표한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 6명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 간다는 것이 주요 줄거리다. 오직 돈이 행복이라는 사람, 돈보다 쾌락



‘이뭇고’는 사물의 두드림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화두포기와 더불어 불교문화를 알리고자 기획했다. 7월 1일까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문문화예술공연장에서 공연된다.

이 최고라는 사람, 태어날때부터 행복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람, 자신만을 믿는다는 사람. 권력이면 다 된다는 사람. 고통을 벗어날 길을 찾아야 행복하다는 사람 등등.

생각과 상황이 전혀 다른 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뭇고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서 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어 템플스테이를 하는 동안 범고와 목어, 운관, 범종 등 사물(四物)의 소리를 통해 느끼면서 그간 각자 찾고자 했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오감과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다는게 내용이다.

“제가 스님 신분으로 공연을 만들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대본에 있

어 보완할 점들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들어 수정할 생각입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 가을에는 시즌 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일반 퍼포먼스, 대중극, 불교 소재 공연 등 3가지 버전을 구상해 이뭇고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경남 양산과 대구 등에서의 지방 공연도 계획중에 있다. “한해 ‘(사)이뭇고’를 설립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강화, 재정확립을 통해 더 좋은 공연을 만들어 대중과 소통하며 불교를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환 기자 wanhillo@hyunbul.com

“망자와 산 자 모두에게 행복 주고파”

108 살풀이 공연 펼치는 이영빈 관무용단 단장

불가에서는 생과 사가 따로 없다고 한다. 하지만 희노애락에 집착해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란 슬프고 애달프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떠나는 자도 떠나보내는 자도 위로를 필요로 한다. 49재는 바로 이런 이별의 과정에서 망자를 여여히 떠나보내고 산 자를 위로하는 의식이다.

불교 관무용단이 49재 살풀이 무료 공연을 시작했다. 108회 공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사찰 공연을 펼치고 있는 관무용단 이영빈 단장은 “저 혼자서 지난 5년간 49재에서 살풀이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재능을 세상에 나누는 기쁨을 알았죠. 올해 들어 제가 우리 단원들에게 49재 공연을 제안했어요. 모두들 흔쾌히 수락했죠.

영가를 위로하는 이 의식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음에 모두 기쁘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49재 공연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출가해 스님으로 입적한 친아버지 때문이다.

“늘 아버지는 출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흰 살이 되던 해 결혼기념일에 어머니와 이혼 도장을 찍으셨고 스님이 되셨어요. 당신의 뜻을 알았기에 저희는 흔쾌히 아버지를 보내드렸고 2006년 승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의 49재에서 춤공양을 올렸어요.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춤으로 행복을 주자고 결심한 했어요”

이후 이 씨는 사찰 49재를 돌며 춤을 췄

다.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무용단 하나쯤 만들고자하는 원을 세우고 관무용단도 설립했다. 어렸을 때부터 참선과 명상을 해오며 무용을 전공했던 그녀의 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앞으로 그녀의 행보는 바쁘다. 그동안 불교 무용단에 총력을 기울여 오던 그녀는

스님으로 입적한 아버지 49재 후 춤으로 보시행 ‘결심’ 후 실천

뮤지컬 제작을 통해 대중을 찾아가고자 한다. “무용단은 계속 유지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더 다양한 영역을 개척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무용 등을 결합한 뮤지컬을 기획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자립해 좀 더 불교를 알릴 수



이영빈 단장의 살풀이 공연중 한 장면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또 불교계 연합 무용단을 결성하는 것도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정혜숙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book 'The World of the Living' (사찰의 상징세계) by Kim Seon-yeon.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ook cover and several questions in Korean, such as 'Why are there gold and silver colors?' and 'Why are there many questions?' The book is described as a comprehensive guide to Buddhist symbols and their meanings, containing 100 questions and answers.

Advertisement for the book 'Radical Acceptance' (받아들임) by American Buddhist teacher Sharon Salzberg.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ook cover and text in Korean, including 'Now, in this moment, accept it as it is' and 'Radical Acceptance Korean Edition'. It also mentions that the author is an 8-year consecutive bestseller.